

'광주 발바리' 4명 더 있다

(전문 성폭행법)

경찰, 사건 현장 피의자 DNA 분석 여대생, 초·중생들 집중적으로 노려

전문 성폭행범인 일명 '발바리'가 지난달 30일 체포된 이모(38·광주시 북구 용봉동)씨 외에 최소 4명은 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북부경찰이 지난 5년 동안 46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지른 이씨를 붙잡긴 했으나, 4명의 '발바리'가 더 활동중인 것으로 보고 1개급 특진 등을 내걸고 체포를 독려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찾아낸 피의자 DNA(Deoxyribonucleic acid)를 분석한 결과 4차례 이상 범행을 저지른 4명의 '발바리' 유전자

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대표적인 '발바리'는 여대생 전문. 이 발바리는 혼자 사는 여대생들의 원룸과 자취방만을 노려 지난 2005년 6월17일 새벽 3시께 북구 운암동에서 이모(22)씨를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1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이 발바리는 170cm 정도의 키로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있는 여대생을 30여분 만에 성폭행하고 도주하는 등 행태가 재빠르고 용의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 등을 집중적으로 노려온 '50대 발바리'도 있다. 이 발바리는 지난해부터 서구 등지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걸 도와 달라"

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유인한 뒤 4~5명을 성폭행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10명을 성폭행한 '제3의 발바리'와 4건을 저지른 '제4의 발바리'가 DNA 검사 결과 나타났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의 DNA를 찾아내 다른 사건들과 비교한 뒤, 이 중 DNA가 똑같은 사건은 동일범으로 묶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발바리들의 DNA를 확보하고도 국내에 'DNA 은행' 등이 없어 피의자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해 이들 사건들은 모두 장기 미제사건으로 처리된 상태다.

성폭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들 발바리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붙잡히기만을 기다리는 꼴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가짜 '오방색 풍수화'

1일 오후 광주지방경찰청 수사팀이 전문 미술품 위조범들로부터 압수한 고(故) 오승윤 화백의 '오방색 풍수화' 위작들을 증거물로 내걸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故 오승윤 화백 위작 시중 유통 2명 검거

인터넷 등서 판매

최근 서울 인사동 화랑가 등에 고(故) 오승윤 화백의 '풍수 시리즈' 위작이 떠돌고 있다는 본보 보도(7월20일자 15면)가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일 국내 유명 서양화가였던 고(故) 오승윤 화백의 대표작 '오방색(五色) 풍수화'를 모사 위작(模寫 偽作)한 뒤 시중에 내다 판 이모(45·인쇄소 직원)씨와 유모(44·골동품 상회 운영)씨 등 2명을 사도화(私圖畫)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오 화백의 '오방색 풍수화'를 모방해 그린 위작(偽作)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속여 호당 10만~20만원씩 받고 모두 20여점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에 올린 오 화백의 작품 중 '오방색 풍수화' 4~10호 크기의 작품 등을 위작하고, 친필 서명 뒤 시중에 내다 판 이모(45·인쇄소 직원)씨와 유모(44·골동품 상회 운영)씨 등 2명을 사도화(私圖畫)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년간 근무하면서 오 화백의 전시회 책자를 제작 의뢰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자주 접했던 점에 이용, 친구인 유씨와 짜고 모방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오 화백의 작품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유명 화랑에서 협감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전국 화랑가와 미술감정협회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와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이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매입자들을 상대로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작품을 구입해 이를 비싸게 되판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오 화백의 유족들은 지난 7월께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국미술품 감정협회로부터 오 화백의 작품 7점을 감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감정 결과 모두 한 사람이 제작한 조잡한 가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나원참 (7320)



다들 물어봐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에 대학원

KCC광호, 시스템광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신라면, 배민, 대림

실리콘·방수제·접착제·타이프

"윤라녀에 선불금 대출은 무효"

○금융기관이 윤라녀의 선불금으로 사용될 줄 알면서도 빌려준 대출금 약정은 무효라고 1일 대법원이 판결.

○대법원 1부는 S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윤라녀와 윤라녀성을 상대로 낸 대외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신협은 대출금이 윤라녀를 권유, 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대출해줬기 때문에 이는 무효이므로 윤라녀가 윤라녀성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판시.

○S신협은 지난 2002년 울산의 한 윤라녀소 업주와 윤라녀성을 연대보증인으로 윤라녀성들에게 3천만 원을 대출해줬지만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업주 부부에 대해 서면 책임을 인정.

성폭력 피해 예방 이렇게...

지난달 30일 검거된 '발바리' 이모(38·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무려 46차례나 고급아파트·원룸 등에 침입해 부녀자를 강간하거나 금품을 털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씨와 유사한 범행을 하는 '발바리'가 최소 4명이나 더 있는데, 예방법은 없는 걸까.

○장애물을 설치하라=범인은 양파즙과 흥삼을 복용하고 헬스를 할 때 근육을 관리,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발코니나 가스배관, 정원수 등은 침입의 발판이 되는 만큼 창문에 인접한 나뭇가지는 잘라내고 발판이 될 수 있는 실내의 장식물을 피하도록 하며 도시가스관 등에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잠금장치는 2중으로=범인이 일을 치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내외로 짧다. 따라서 모든 문과 창문에 2중 잠금장치를 하는 것이 안

전하다.

○자동차 센서 설치=범인은 주로 새벽 3시 이후에 범행했다. 또 어두컴컴한 곳에서 흥기로 위험, 공포심을 유발했다. 따라서 밤에는 TV나 라디오, 전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세팅 한다.

○거주자 신분 남기지 마라=범인은 주로 여성 홀로 사는 집만을 골랐다. 남자가 있으면 금품만 빼앗아 달아났다. 따라서 거주자의 이름이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남기지 않도록 한다.

/이종행 기자 galee@kwangju.co.kr

보성 70대 어부 '연쇄살인'

초동수사 미흡 사건 키웠다

'보성 회천연쇄살인사건'은 경찰이 초동수사만 적절히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피의자 오모(70·어업)씨가 지난 8월31일 오후 6시25분께 대학생 남녀 2명을 살해 당시 피해 여대생이 119에 4번의 구조전화를 했다. 오씨가 밀어넣은 후 감씨가 다시 배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 추모(여·20)씨가

119 지령실에 4차례 전화를 건 것이 다.

경찰은 하지만, '20대 남녀의 애정 행각'으로 치부하고 단순 가출로 추정해 적절한 초동수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의 사체가 회천 앞 바다에서 발견된 뒤에도 여수해경과 보성경찰은 공조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수해경이 변사체의 검안에만 몰

두하는 사이, 보성경찰은 이들의 육지행적만 추적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이다.

이들 경찰이 적절한 수사로 조기에 피의자를 검거했다더라면, 추석 연휴 조모(24)씨 등 여성 관광객 2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대목이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kwangju.co.kr

■ 끔찍한 범행 노인이 어떻게

뱃일로 단련...완력은 20대

한 달 새 20대 남녀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죽인 70대 어부의 살인행각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165cm도 채 안 되는 작은 체격과 짧은 고수머리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오모(70)씨는 전형적인 어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성추행과 살인을 서슴지 않는 흉악범이었다.

오씨의 나이 때문에 수사진도 처음엔 그가 범인일 것이라는 단정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오씨는 나이만 70대일 뿐 뱃일로 단련된 강건한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데다 완력도 건강한 20대 못지 않는다는게 수사진의 얘기다.

특히 범행이 이뤄진 바다와 배위의 환경이 오씨에게 익숙한 곳인데 반해 피해자들에게는 저항하지 못할 '특수환경'이었던 점도 오씨의 이같은 범행을 가능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현대전화 번호 2만8천개 유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검거

여수경찰은 1일 현대전화 고객들의 개인신용 정보를 유출한 1이동통신사 대리점 김모(29)씨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여수시 화동 1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대리점 컴퓨터에 입력된 가입자의 전화번호 2만8천여 건과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메일을 통해 현대전화 불법복제 업체에게 건네주고 건당 1만5천원~2만원을 받는 등 총 2천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경관지시청 기호로도 난청 발생입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star.co.kr

무엇보다도 가격입니다. 무엇보다도 품질입니다.
상업전화 1588-8499 080-222-0100